



보도 시점	<전매체> 2.22(일) 배포 즉시	배포	2026.2.22.(일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·배포 부서	소통홍보팀	책임자	팀 장	김민철 (044-300-0720)
		담당자	주 임	김셋별 (044-300-0721)

기정원장, 생성형 AI 기반 헬스케어 혁신기업 (주)아크릴 방문

- '2025 R&D 우수성과 50선' 선정 기업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 -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이하 기정원) 김영신 원장은 2월 20일 (금), 생성형 인공지능(AI) 플랫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기업 (주)아크릴의 서울 본사를 방문해 '2025년 중소기업 R&D 우수성과 50선' 선정에 따른 현판식을 개최하고,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.
- 2011년 설립된 (주)아크릴은 통합 AX 인프라 플랫폼을 개발하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기업이다.
 - 또한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202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동시에 입증하였다.
 - 주요 제품인 '조나단(Jonathan)'은 GPU 효율화부터 AI 워크플로우 자동화 구축까지 AX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AX 인프라 플랫폼으로, 기업의 AI 시스템 구축과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.
 - 뿐만 아니라 (주)아크릴은 임상 데이터를 구조화·분석해 의료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'나디아(NADIA)'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.
 -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(주)아크릴의 매출액은 2022년 약 72억 원에서 2024년 약 134억 원으로 증가하며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.

- (주)아크릴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통해 다수의 정부 R&D 과제를 수행하며 핵심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해 왔다.
 - 그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'2025년 중소기업 R&D 우수성과 50선'에 선정되었다.
 - 선정 혜택으로 중기부 장관 표창과 함께 정책금융 연계, 투자유치 지원,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, 후속 R&D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.
- 이날 김영신 원장은 (주)아크릴의 AI 솔루션 시연을 참관하고 연구 시설을 둘러본 뒤, 산업 현황과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.
 - 박외진 (주)아크릴 대표는 "기정원의 R&D 지원을 통해 통합 AX 인프라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"며, "이번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"고 밝혔다.
- 김영신 원장은 "AI는 국가 전략기술로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재정의하는 핵심 동력"이라며, "(주)아크릴의 통합 AX 인프라 플랫폼은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생태계 확산을 견인하는 우수 사례"라고 평가했다.
 - 이어 "기정원은 R&D 우수기업이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